



불길하게 생긴 책: [이터널 코퍼레이션]



오래 소지하고 있었거나 아끼는 물건. 그런 물건들에는 인간의 영혼이 아주 소량이라도 옮겨붙기 마련이다. 그러나 극히 소량이라도 주술을 걸기에는 충분하다.

1. 이터널 코퍼레이션은 위대한 이스족을 모시는 사교도 집단으로, 이 열차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물건을 매개체로 주술을 건다.

2. 그 주술은 <영혼유인>이라 불리는, 천천히 영혼을 빼앗는 주술이다. 빼앗은 영혼의 90%는 물건의 형태로 이스족에게 바쳐져, 그분들께서는 그것을 실험과 해부에 사용하며 위대한 지식을 기록한다.

3. 대신 이스족은 지구의 생명체들에게 아주 사소한 지식을 하나 남겼다. 원소를 끌어와 자원을 생성하는 주술이다. 이 <물질변환> 덕분에 이 멸망한 땅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집단이 되었다.

4. 물건에 영혼을 90% 이상 빼앗긴 사람은 **[연료칸]**으로 옮겨져 죽을 때까지 열차를 구동하며, 반시체의 형태로 천천히 영혼을 소모당한다. 이렇게 열차는 무한히 가동된다.

5. **[연료칸]**에서 소모된 시체는 라이칼 호 밑바닥에 수중 투기한다.